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농경지 상습 수해  
소포천 재해예방 추진

부안군은 우기철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주산면 소포천 일원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교량(홍해1교) 재가설과 제방 250m의 축조 및 보강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월류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 발생되는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지속적인 침수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행정안전부 재난수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는 등 예산확보와 조기 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산면 홍해마을 인근 농경지 110ha의 침수 피해 예방 및 생명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야간 안전 가로등  
LED 365곳 새 단장

정읍시가 야간 안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LED 가로등 교체·신규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범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이달 완료를 목표로 5억 5000만원을 투입해 읍면동에서 접수된 200곳의 신규 설치와 기존 불량 가로등 165곳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 대상인 LED 가로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또한 자동 점멸기를 적용해 점·소등 시간 오차를 줄이고 고장률을 크게 낮췄다.

이번 가로등 설치로 시민의 야간 통행 안전과 우범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되며, 각종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2만7000여 개의 가로등을 관리, 매년 신규 설치와 정비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시민 중심 정책 점검

실과소, 읍면동 현안업무·민원·건의 사업 등... ‘위대한 여정의 시작’ 준비

정읍시가 연말을 맞아 62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 도약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확대간부회의는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는 지난달 29일,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현안 점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밀착’형 좌석 배치로 진행됐으며 △2025년 일자리 창출 지원 △정읍체육특레이닝센터 운영관리 △(구)상공회의소 리모델링 정읍시회 복지관 확대 운영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등 62개 사업이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공모사업 신청 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용역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용 목적을 상실한 공유재산은 신속히 용도폐지 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도로 재굴착 문제를 방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올 한 해 고생 많았다”며 “연말연시 공직자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밀한 업무 추진을 통해 2025년이 정읍의 위대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2일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 ‘9개 자매도시 기부 인증’

심덕섭 고창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심덕섭 고창군수가 2일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전국 자치단체장,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 사진 인증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북 고령군 아남철 군수로부터 챌린지 주자로 지명받은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내 자매결연도시 9개 자치단체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 내역을 인증하고 다음 주자로 장준용 동래구청장을 지명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위한 인증 챌린지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우리 고향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고창군은 지역 특산물인 장어, 복분자, 고구마, 쌀을 포함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관광·서비스 상품 등 80여 종류의 답례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자원봉사자대회, ‘서해안 철도건설 촉구’

3500여명 자원봉사자 참석 동리국악당서 결의대회로 치러져

고창군과 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은서)가 2일 오후 3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리국악당에서 ‘같이의 가치’를 ‘서해안 철도 건설’로 결의하는 ‘2024 고창군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2024 고창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기념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서해안 철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결의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우수자원봉사자와 우수기부자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군수표창 10명, 군의장 표창 2명, 도지사 표창 5명, 군 이사장 표창 5명을 비롯하여 이웃돕기성금, 고향사랑기부금, 고창인재키우기 장학금을 기부한 우수기부자 7

명에게 고창군수 표창이 수여되었다.

또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이 “맛있는 일상, 멋진 일상을 주제로 자원봉사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특강도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도 자원봉사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고창군 지역 곳곳에 희망을 안겨 주셨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사를 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2024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

지역경제 이끄는 소상공인들에 감사·격려 함께한 화합의 시간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열정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2024년 정읍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경제를 이

끄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철범)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들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열정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2024년 정읍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경제를 이끄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을 위로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의장,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소상공인들의 헌신을 격려했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기념촬영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철범 회장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 와주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정읍의 모든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구심점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정읍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AI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 보건소는 지난달 29일 보건교육실에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AI 대응 인력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실전 대비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야생조류와 가금류에 감염되지만, 사람

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와 예방이 필수적이다. 감염 시 무증상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및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훈련 주요 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교육(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가금류 농장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상황에서 살처분 인력 중 의사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개인보호복(레벨D) 착용의 시연 등이 포함됐다.

최근 국외 인체감염 사례와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이번 훈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정읍=김대환기자

